

“명문대 진학 7년 만 4배 ↑”...보성군 명문고 육성 성과

2020년 대비 3.8배 증가 기염
고교 학업 성취도 '상향 평준화'
입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원



보성군이 추진한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은 보성고 학생들이 심화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보성군 제공>

보성군은 학생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추진해 온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교육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9일 보성군에 따르면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능·내신 대비 심화학습 프로그램 ▲대입 전형 분석 및 1대1 진로·진학 컨설팅 ▲우수 강사 초청 특강 ▲학교 재량에 기반한 자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연중 지원해 오고 있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2026학년도 관내 3개 고등학교(보성고·별교고·예당고)의 명문대 및 우수학과 합격자는 총 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대비 약 3.8배 증가한 수치로, 사업 추진 이후 7년 연속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성과는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고 3개

고교 전반에서 고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교 간 우수 사례 공유와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를 통해 전체 학생의 학업 역량이 향상되면서 '교육의 상향 평준화'가 구현된 것으로

분석된다. 진학의 질적 수준도 개선됐다. 서울권 주요 대학을 비롯해 의·치·약 등 의료 계열과 KAIS T 등 첨단학과 합격생이 다수 배출되며, 농어촌

지역에서도 최상위권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일부 학생은 복수의 상위권 대학과 의료 학과에 동시 합격하는 등 선택권이 확대된 모습도 확인됐다.

군은 올해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각 학교의 강점을 브랜드화한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입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학교별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를 정교화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우수한 외부 학생들의 유입이 늘고 있으며, 중학생들의 외부 유출도 방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입시 전략 수립과 함께 전폭적인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보성=임병연 기자

곡성군, 고향사랑기금 1호 '마을빨래방' 가동

석곡·임면서 수거·배달 서비스 운영
고향사랑 지정기부 목표액 달성 성과



곡성 석곡면마을빨래방 개소식 모습. <곡성군 제공>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으로 거동 불편 취약계층의 대형 세탁물 처리를 돕는 생활 밀착형 복지 인프라를 가동했다.

9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 목표액 달성을 통해 조성된 석곡면과 임면 마을빨래방 2개소가 지역 맞춤형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세탁물 무료 수거·배달 서비스에 돌입했다.

이번 마을빨래방 사업은 군비 투입 없이 오직 출향인과 국민들이 기탁한 고향사랑 지정기부금만을 재원으로 추진된 첫 생활 복지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군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각 권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운영 방식을 도입, 석곡면 마을빨래방의 경우 요일별로 '우리 마을 빨래 하는 날'을

지정했다. 해당 운영 방식은 사전에 공지된 규칙에 따라 각 마을회관에서 세탁물을 일괄 수거해 세탁·건조 후 다시 배달해 주는 시스템이다.

임면 마을빨래방은 지역 농협과 연계해 기동성을 높였으며, 임면 농협 차량을 활용해 1주일에 2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방문, 세탁물을 수거·배달하고 있다.

해당 마을에는 별도의 사전 공지를 통해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

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이불과 같은 대형 세탁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위생과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마을빨래방사업은 기부자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직결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정기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마을빨래방 사업의 안정적인 안착을 돕는 한편,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신규 지정기부사업 발굴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마을빨래방 설치 프로젝트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립 등 총 3개 분야를 핵심 지정기부사업으로 지정해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

담양군 노후 상수도 정비 '전국 최우수'

연간 30억원 예산 절감 성과
전국 지자체 설명회 우수사례

주관 '2026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지자체 설명회'에 참석해 전국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담양만의 우수 정비 사례를 발표했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총사업비 279억원을 투입해 담양읍과 창평 지역에 구역별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수압 측정 체계를 도입했다.

철저한 야간 최소 유량 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연간 145만t의 누수를 차단, 매년 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군은 지난 2월 '2027년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추가 신청했으며, 차기 공모 선정 시 용면 용흥, 무정, 고서 등 미정비 구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군 전역에 고품질 상수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용희 물순환사업소장은 "담양의 물 관리 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도를 공급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



화순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2026 화순 봄꽃 축제' 개막을 앞두고 서리·우박을 동반한 기온 저하로 인한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해 꽃강길 식재 구간에 현장 인력을 집중 투입, 부직포 보온 조치를 완료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기상 변수 뚫고 '봄꽃 축제' 채비

오는 17-26일 꽃강길·남산공원서

화순군은 9일 "오는 17-26일 화순읍 꽃강길 및 남산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화순 봄꽃 축제' 개막을 앞두고 초화류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급격한 기온 저하와 우박 등 돌발 기상 변수 속에서도 지역 대표 봄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빈틈없는 현장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봄꽃야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벽라교에서 삼천교로 이어지는 2.1km 구간(총 6

ha)과 남산공원 일대에 유채꽃을 비롯해 금어초, 팬지 등 20여종 30만본의 초화류를 식재해 다채로운 경관을 연출한다.

최근 서리와 우박을 동반한 기온 저하가 발생하자, 군 농업기술센터는 저온에 민감한 주요 꽃강길 식재 구간에 현장 인력을 집중 투입했다. 이들에 걸쳐 부직포 보온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꽃잎 손상과 생육 저하를 선제적으로 막아냈다. /화순=이병철 기자



광양교육지원청, '드림렉처' 이공계 진로 교육 가동

고교생 20명 대상 미래 기술 탐구
8월 경희대·고려대 등 캠퍼스 탐방

광양교육지원청이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산업 핵심 기술 분야의 진로 방향 설정을 돕는 심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9일 광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광양·여수교육지원청 공동 주관으로 관내 5개 일반고 학생 20명이 참여하는 '2026 드림렉처 이공계 심화 진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양교육 2030 비전: 광양의 배움, K-교육을 이끈다'의 5대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창의융합 배움'을 교육 현장에서 구체화한 실천 사례로, 생성형 AI·반도체·신약 개발 등 미래 산업을 관통하는 핵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학생들의 주도적인

진로 설정을 지원한다.

앞서 3일 열린 1회차 강연에서는 최석영 연세대학교 교수가 '생성형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는가'를 주제로 정보 신뢰성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이어 신창환 고려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 대표 산업, 반도체의 미래'를 주제로 국가 핵심 산업의 전망과 이공계 인재의 비전을 공유했다.

프로젝트는 오는 5월 2회차 강연에 이어, 8월에는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캠퍼스 탐방 및 대학생 멘토링 등 현장 중심의 연속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여선 교육장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 배움을 삶으로 연결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미래를 이끄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여수해경, 러시아발 원유 100만배럴 호송

여수해양경찰서가 국가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인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 관내 부두로 입항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에 대한 전방위적인 안전 호송 작전을 전개했다.

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8시30분까지 경비함정 2척을 동원해 여수 GS칼텍스 원유 부두에 접안하는 8만톤급 대형 유조선 '넌터킷(NANTUCKET)'호를 안전하게 호송했다

이 유조선은 러시아 노보로스스크항에서 원유 100만배럴을 싣고 입항했다. 해경은 특경해

역 진입 지점부터 원유 2부두까지 약 30km(19마일) 구간에 걸쳐 호송을 실시했다.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전에 저수심 구역을 확인하고 페이구 등 항해 장애물 예찰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항로상 어선 집단 조업을 막기 위한 사전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기용 서장은 "초대형 원유운반선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국가 에너지 수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성군, 임산부 맞춤형 '스마트 맘케어' 본격화

오늘까지 참여자 모집...AI 분석 등

장성군이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체계를 가동하며 출산 지원 기반 강화에 나선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10일까지 첨단 기기를 활용해 산모의 건강을 종합 지원하는 '스마트 맘케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고위험 및 산후유증 위험군, 저소득·다문화 가정, 초산모,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출산부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스마트워치와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 디지털 건강 측정 기기를 일괄 제공하며, 기기로 측정된 건강 데이터는 AI가 즉각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소 전문 인력인력수면·식사 등 생활 요인을 종합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의 료기관 진료를 연계한다.

앞서 지난해 함께출산율 전국 2위를 기록한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 친화 환경을 굳건히 다질 계획이다. /장성=김태희 기자